우리가 사는 생활이 참선이며 바로 당신이 화두다

☞ 19면에서 계속

뭣고?' 하면 그래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은 걸요.

아, 그런데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보는 게 많은데 아니 글쎄, '이게 뭣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돌아가지를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지금 지구에 관한 것도 그렇지마는 우주 전체의 진리에, 여기에 어떻게 순응하고 돌아갑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끝없는 진리에는 순응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연으로 인한 거는 어찌할 수가 없고, 또 인연이 없는 중생은 건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소용돌이 속 아무데라도, 그냥 불바퀴가 막 돌아가는 이 소용돌이 속에도 우리는 그냥, 거기 들어가도 같이 순응이 되고 나와도 같이 순응이 되고, 들어가고 나옴이 없기 때문에 켜졌다 꺼졌다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무식한 게 낫지, 내가 만약에 학문을 많이 배웠다면 지금 얼마나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행을 갖다가 거짓으로 했겠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양심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잘못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이것은 마음이 넓고 지혜롭게, 모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섭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스님은 왜 돈을 갖다 누구를 그냥, 못산다고 그냥 털컥 주십니까? 지금 집에도, 이 절에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정말 딴은 보니까, 이번에 사무장님 가시고 난 뒤에 우리 재무 스님을 이렇게 내면서 보니까 딴은 돈이 없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총무 스님도 나같이 무지렁이가 돼서 주먹구구로 이거 살림하느라고 너무나 애를 썼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정말 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참,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지 남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생각이 났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거 할 땐 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으리만큼 천 원도 안 남기고 다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질 않으셔야 되는데…." 하는데 나는 내가 편안하려고 그저 조금이라도 넣어 가지고 다니죠. 만약을 생각해서요. 내가 무슨 국수를 사 먹습니까, 떡을 사 먹습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먹고 싶은 걸 사 먹죠.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정나미가 뚝 떨어졌는지 그냥 입에다 하나도 넣기가 싫은 거예요. 약으로 정말 이렇게 좀 먹고는, 눌은밥이라도 끓여서 이렇게 먹죠. 이런 말 하는 건 안됐지만.

우리 지금 실생활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 실천의, 실 진리의 삶에 대한, 그대로 우리 모두의 얘깁니다. 지금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법도 여기 있고 물질 세상도 여기 있고, 죽어 가는 것도 이 자리에서 죽어 가고 살아 나오는 자리도 이 자리고,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벌어지고 이렇게 생기는 일인데, 얼크러지는데 인연, 인연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나가다가 말만 서로 통해도 인연이요, 모두가 이렇게 인연입니다. 우리가 아는 집에 들어가지, 다짜고짜 아주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뭐, 나 배고프니 밥 좀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와 같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 알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데 인연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해(害)하게 만드느냐, 이(利)하게 만드느냐? 서로 이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게 그냥 똑바로 사느냐. 이런 것도 문제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는다, 언짢은 인연을 맺는다' 이런 거는 금방 옵니다.

옛날에 친구 둘이 정답게 공부를 하고 살다가, 하나는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인데 어느 승려가 말입니다, 거기를 갔죠. 예전에 탁발을 할 때니까요. 집집마다 이렇게 공양을 얻으러 갔는데 그 부잣집에서 밥을 상당히 대접을 잘하고 또 공양을 바리때에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부잣집 아들이 바로 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수행을 하는데 아, 이거는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져서 그냥 이 팔이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갖다가 엇메고선 이러고 다녔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은사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수행을 하는데 팔 없이 참 괴롭겠구나." "예, 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팔로 할 거를 발로 하고 이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니까 "얘야, 네가 너 자체를 진정 안다면 너의 과거를 현실에 볼 수 있느니라. 너를 색경으로 봐라. 네가 예전에 어느 나라의 정승으로 있을 때 사냥을 나갔느니라.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어느 두 팔을 못 쓰는 수행자한테 길을 물었더니 이 팔로 가리킬 수가 없어서 다릴 들어서 저리로 가시라고 이렇게 일렀더란다. 그랬는데 그 정승은 감히 나한테 발로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팔을 그냥 아주 못 쓰게 잘라 버렸단다. 쓰지도 못할 팔은 있어서 뭘 하느냐고 그냥 팔을 잘라 버렸단다. 네가 그때 그 정승이니라. 너도 그만큼 어렵지? 네 두 팔이 그것이 그냥 다친 게 아니니라. 그것이 인과응보니라. 네가 한 대로 받는 거니라." 하시더랍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내외가 되돌려 달라고 울면서, "뒷사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해야만이 되돌려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애가 사탕 사 달라고 우는 거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거기를 건너서라도, 이 세상 아닌 저 세상, 이것도 여기와 둘이 아니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언덕의 어려움, 어떠한 물의 어려움, 어떠한 불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길 넘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 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만 가졌지, 상표만 가졌지 심부름꾼 아니십니까? 올바로 이끌어 가고 올바로 그냥 해 주고, 올바로 벌어다가 먹여 주고 올바로 입혀 주고, 어떡하면 잘 입히고 어떡하면 잘 먹이고, 어떡하면 잘 공부를 시키고 어떡하면 앞으로 잘되게 해서 저희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 주나 하는 그런 심부름꾼 말입니다. 아마 저하고도 같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거를 똑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괴로움을 좀 덜고, 하여튼 십분의 칠이나 팔은 좀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 일체 만물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거기에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기나 모든 것이 부합된다, 모든 병 증세에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약을 쓰고 그러는데도 보이지 않는 데를 모르고, 약이 스스로 오는데도 모르고 그냥 병원으로 간다. 그래 가지고 그냥 어디 다리도 자르고 말이야, 별짓 다 하는데, 뭐, 창자가 꼬여도 그냥 가서 자르고 잇고 그러는데 그냥 둔 것만 하겠습니까? 허허허. 그냥 자연 그대로, 내 생긴 대로 그냥 둔 것만은 못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딴 게 또 생긴다면 그건 또 어떡하시렵니까?

> 이 색신이 나와서 이 도리를 알고,
> 또는 자기 위로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 아래로는 제도할 줄 아는
> 그러한 사람으로서 옷을 벗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50%만 말을 하지, 50%는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그냥 생활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보살이 되시고, 부처라는 것도 상표가 부처입니다. 진짜 부처는 자유자재하는 게 부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달마 대사는 왜 수염이 없느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달마 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고? (중략)

그래서 이것을 이론으로만 이렇게 하실 생각 마시고 이 마음으로 진짜 이해하고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스스로서 느끼고 스스로서 알게 됨으로써 그것은 어느 누구가 뭐래도…. 못났든 잘났든 글쎄,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신 가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자 줄 수도 없고, 똥 누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죠? 그러니 부처님인들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러니 인연 없는 중생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나처럼, 무지렁이처럼 몰랐든 알았든, 모자라든 자라든, 남이 잘하는 거 끌어오려고 하지도 말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냥 사세요.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사세요'가 아니라 그대로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가지세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이번에요, 사무장님이 그렇게 되시고 어떤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생각을 해도 좋을 텐데 그저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저 이대로, 그저 스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가면…, 줄창 남한테 기대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해 보면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저 엉겁결에 잘난 거 찾으려고 껑충 뛰고, 또 엉겁결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뛰어가서 펑덩 빠지지 마시고, 남한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을 옳게 쓰면 옳은 말도 나가고 옳은 뜻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옳은 행을 하게 되고 이럽니다. 요걸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살아나가는 길에 어떠한 착오가 없이, 우리가 죽고 사는 거야 다 죽고 살지마는 그래도 이 색신이 나와서 이 도리를 알고, 또는 자기 위로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아래로는 제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옷을 벗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갈 때 되면 그냥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다 하면 그냥 갈 수 있게끔요, 예? 그리고 요만치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있을 수 있게끔요. 이렇게 하세요. 그것이 인간의 큰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자세히 말한 거, '가설됐다는 거, 그리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내 가슴을 좀 덜, 내 눈물을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2월 4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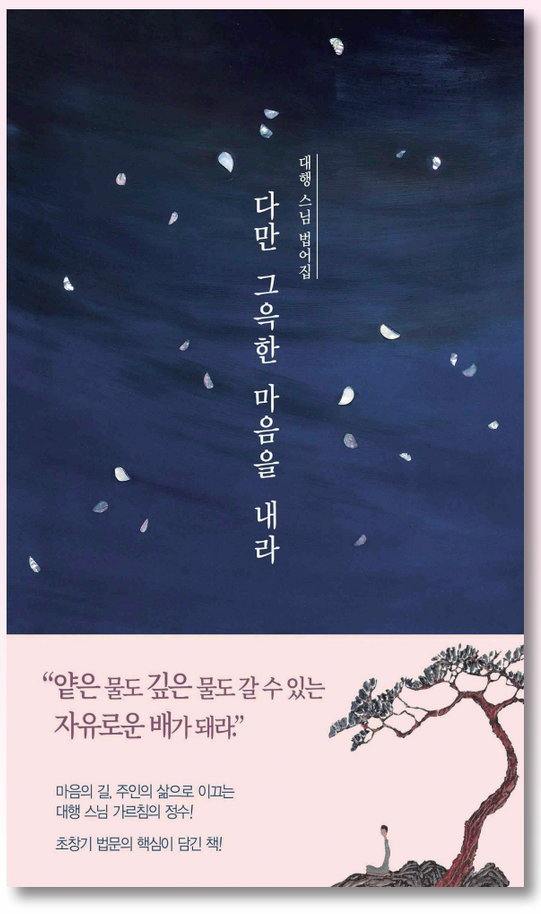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